

석 사 학 위 논 문

제주문화관광 활성화에 따른 방안

- 음악축제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전 지 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 여 은

1999년 8월 일

제주 문화관광 활성화에 따른 방안
- 음악축제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전 지 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9 년 6 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여은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1999 년 7 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國文抄錄〉

제주 문화관광 활성화에 따른 방안
- 음악축제 중심으로 -

정 여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전 지 현

제주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90년대에 이르러 내국인의 해외여행 선호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한 제주관광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커다란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관광객에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관광의 대상이다. 특히 독특하고 차별성이 있는 문화는 관광자원으로서 훌륭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제주관광의 활성화 방안으로 음악축제를 관광자원화 하는 측면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관광의 이론적인 고찰과 세계 각국의 문화관광 이벤트를 통한 성공사례를 문헌을 통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 지역의 문화 이벤트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축제 개최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세계적인 유명음악축제 성공사례를 통해 앞으로 제주도에서 세계적인 음악축제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는 효과적인 측면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문화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제주도내에서 세계적인 음악축제를 개최할 때에 제주도는 새롭고 창조적인 문화의 출발지가 될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이 활용을 들 수 있다.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음악인들이 많지만 마땅히 사회적 가치 입장에서 음악활동의 장이 미흡하다. 그러나 음악축제를 통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폭넓은 인적자원의 활용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음악축제기간에 제주도를 찾는 연주자 및 관

람객들이 숙박시설, 오락시설, 관광지 관람, 식음에 이르기 까지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생기는 경제적인 소득은 제주도내에 경제적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제주도의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들 수 있다. 제주도에서 세계적인 음악축제가 계속 이루어질때에 국내외적으로 제주도의 홍보는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음악축제는 제주도 관광지의 이미지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이제 문화관광은 세계화를 위한 전략산업이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음악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관광산업이 한 분야라고 본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II. 문화관광의 이론적 배경	4
1. 문화관광의 정의	4
2. 문화관광의 유형	7
3. 문화관광의 영향	8
III. 문화관광 이벤트 및 음악축제	12
1. 외국의 문화관광 이벤트 및 음악축제	12
2. 제주도의 문화관광 이벤트 및 음악축제	23
IV. 제주도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따른 음악의 역할	31
1. 문화관광과 음악과의 상관관계	31
2. 공연장	33
3. 인적자원	35
4. 예술행정	36

V. 제주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38
1. 음악축제 필요성	38
2. 음악축제 형태	39
3. 음악축제 효과	40
VI. 결 론	42
참고문헌	45
Summay.....	47

표 목 차

<표 1> 문화관광의 영향	11
<표 2> 안티고니시 지방의 관광객 비교	14
<표 3> 애딘버러 축제들의 경제적 효과	16
<표 4> 세계의 음악축제	22

I. 서론

1. 연구목적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자 정보화 세기이다. 범세계적인 동질화 경향은(globalization) 결국 우리에게 우수한 국제 경쟁력과 지역을 거점으로한 자기 정체성(민족, 지역, 문화등)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1)

이 시점에서 세계는 관광산업 역시 자연자원의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원 개발에 눈을 돌려 지역에 정체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문화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를 내용으로 한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1955년 ‘관광안내소’가 처음 등장하면서 관광산업이 시작되었고, 1996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현고등학교에 관광과가 신설 되었다. 특히 1975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정부주도의 제주도관광종합계획, 1·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 등 관광산업은 제주도로써 모든 산업 중에 우선 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게 됐다. 2)

그러나 제주도 관광산업은 80년대까지만 해도 경쟁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안이한 발전을 계속해 왔으나 90년대 들어 세계경제시스템의 변화 및 내국인의 해외여행 선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1) 한국관광공사(1997),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p.19.

2) 이선문(1992), "문화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모색", p.196.

앞으로 제주관광은 커다란 전환점 없이는 현재수준을 유지하기도 힘들게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주관광의 경우에도 앞으로 전개될 변화를 능동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맞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새롭고 창조적인 문화를 관광자원화 하여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여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제주의 문화를 떠올릴 때마다 전통문화에 대한 비중이 높았고 문화진흥이란 차원에서 또한 기존의 전통문화 계승만을 고수하는 경향이 짙었다. 새로운 자기 발견의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문화란 전통의 형식들에 맞추어진 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생활문화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문화는 과거의 전통문화만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들어 제주도에서 문화관광의 하나로 각종 축제와 문화 이벤트가 행정기관 및 지역단체에 의해 열리고 있다. 관광의 부가가치와 지역 도민의 정서함양 목적에 기반을 두고 행사를 하고 있지만 타 지역 축제와 거의 동일한 방식의 프로그램과 대부분 제주도민만의 참여로 끝나버리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에 문화관광이벤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새롭고 창조적 특색이 있는 문화를 자원화 하여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음악은 세계적이고 누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관광과 함께 충분히 관광자원화의 가치가 있는 장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문화관광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음악축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현대관광이 인간의 문화적 척도라는 문화활동의 행위의 하나라는 점에서 관광의 유형 중에 문화관광을 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범위는 향토문화행사, 각종 이벤트 그리고 세계의 음악제를 포함 시켰다.

공간적 범위는 관광산업과 연결하여 비교적 충실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또 제주도를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주로 기술적 연구방법으로서 문화관광에 관련된 국내외 전문 서적과 자료를 참고하는 문헌조사 방법, 국내의 관련논문에서 문화관광에 관련된 내용 문서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음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관련전문 연구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정기간행물 및 비정기간행물, 보고서등 분석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존 통계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Ⅱ. 문화관광의 이론적 배경

1. 문화관광의 정의

현대사회의 관광은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 관광을 말할 때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개념규정으로서의 관광은, 사람이 일상의 생활권을 떠나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타국이나 타지역의 문물·제도 등을 시찰하고, 풍경을 감상·유람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뜻한다.³⁾

관광을 정의함에 있어서 단위행위로 본 협의의 정의와 그 행위가 집단적 사회현상으로 나타날 경우에 일어나는 각종 관련현상까지도 포함한 광의의 정의로 구분하면, 우선 협의의 관광은 사람이 일상생활권으로부터 떠나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이동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풍경 등을 즐기는 것이며, 광의의 관광은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 파생되는 사회현상의 총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

인류학자 타일러(Tylor)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윌리엄스는 문화를 “총체적인 생활양식”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화는 다양한 관광매력물 중 가장 큰 유인력을 갖고 있다.

현대사회의 관광의 한 유형인 문화관광은 그 개념의 포괄적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는 문화관광개발이 필요하다.

3) 강전승(1969), 「국제관광론」, 동경:동양경제신문사, p.4.

4) 김진섭(1993), 「관광학원론」, 대왕사, p.22.

문화관광의 사전적 의미는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 등이 보존되거나 스며있는 지역 또는 사람의 풍요로웠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행위”라고 정의되며 계획적인 전략으로서 문화관광을 “지방과, 국가복지, 기업체 그리고 환경요건과 관광객의 욕구와 균형을 맞추면서 그 지방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풍요로운 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도되기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세계관광기구(WTO)에서는 문화관광이란 “자연의 역사, 인위적 유산, 예술과 철학 그리고 다른 지방·국가의 관습,제도에 몰입하는 것”⁶⁾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계관광기구의 연구논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이란 협의로는 연구여행, 예술문화여행, 축제 및 기타 문화행사 참여, 유적지 및 기념비 방문, 자연·민속·예술 연구여행, 성지순례 등 본질적으로 문화적 동기에 의한 인간들의 이동이고, 광의로는 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경험·만남을 증가시키는 등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⁷⁾

문화관광의 대상은 역사적 건물이나 기념품 등 유적과 사적 및, 사적지, 박물관, 영화관, 미술관 등 유형의 구조물은 물론이고 세시풍속, 민속음악, 무용, 종교, 언어, 생활양식 등 무형의 요소까지 포함된다.⁸⁾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이란 사람이 거주지를 떠나 문화유적지, 박물관, 예술 공연 및 전시, 문화 이벤트 및 향토문화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문화는 관광의 본질로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음 네가지 측면

5) 안중윤 편저(1985), 「관광용어사전」, 법문사.p.28.

6) 노일봉(1995), “관광산업 중 문화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문화예술 통권189호, P.72.

7) Anthony J. Tighe(1985), “CulTural Tourism in the U.S.E ” Tourism Management, Vol.6, p.234-235

8) 임영숙, “문화관광 내용에 충실해야 될 시점”, 문화예술 통권 187호 1995. p.42.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문화의 개발과 그에 따른 문화관광의 전개는 지방재원의 증대면에서 커다란 몫을 담당한다. 문화관광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개발을 전제로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시켜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준다. 관광객들은 단지 문화관광만을 위한 지출 외에 관광지 주변의 숙박, 교통시설, 쇼핑시설 사용에 다른 지출로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문화관광에 대한 시설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소득을 높여주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도시는 문화관광을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준다.

셋째, 문화관광은 문화예술을 진흥시킨다. 문화관광이 개발을 다음 두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개발하여 문화관광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관광의 매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문화관광은 관광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문화관광은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관광을 확대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문화관광은 문화 자원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⁹⁾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의 향상은 관광산업에 성장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단지 자연의존에 따른 관광산업은 더 이상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없다. 지역의 문화자원 및 새로운 문화자원에 의한 문화관광은 앞으로 관광산업에 필수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다.

9)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5), 문화·체육·관광 연계 방안, p6-7

2. 문화관광의 유형

문화관광의 유형은 여러 가지 요소 및 요인들을 통해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광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요인이나 요소의 특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관광객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문화관광의 유형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와합(Wahab)은 위락적관광, 문화관광, 정치적 관광으로 유형화 시켰고¹⁰⁾ 관광학자 베르넥커(P. Berneker)는 보양적관광, 문화적관광, 사교적관광, 스포츠관광, 경제적관광, 정치적관광으로 더욱 구체화 시켰다. ¹¹⁾ 그리고 스미스(Smith)는 위락관광, 문화관광, 역사관광, 민속관광, 환경관광으로 구분하였으며, 미국 상무성에서는 관광의 유형을 민속관광, 문화관광, 역사관광, 환경관광, 위락관광, 대인관광으로 관광을 유형화 시켰다. ¹²⁾ 또한 우리 나라 한국관광공사 경우에는 문화관광의 유형을 자연관광, 문화관광, 사회관광, 산업관광, 위락관광으로 나누고 그 중에 문화관광의 자원으로는 고궁, 유적, 사적, 사찰, 건축물, 유·무형문화제, 향토민속축제, 박물관, 미술관, 기념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¹³⁾

따라서, 문화관광의 유형은 이러한 자원 및 요소를 통해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관광은 크게 문화유산관광(heritage tour)과 예술관광 (art tour)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문화관광이 대상이 되는 문화자원의 속성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Wahab S(1975). Tourism Manasement, London Tourism International press, p. 10~11

1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 연구소(1989),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 연구", p. 25

12) Duffied B.S(1982), "Tourism : The Measurement of Economic and Social Impact",

Tourism Manayement, p. 35

13) 한국관광공사(1989), 전국 관광장기 종합 개발계획. p. 345

문화유산관광에는 문화유적지, 고궁, 사찰, 전통공예, 박물관, 유·무형 문화재, 능, 발굴터, 역사기념물, 및 사적, 향토행사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술관광은, 미술관, 콘서트홀, 문화예술 이벤트, 전시관, 공연 및 전시 조각공원, 문화센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관광과 예술관광 외에도 도시의 문화 환경 자체, 생활문화, 지역의 역사와 민속 등 다양하다.¹⁴⁾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의 범위는 점점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과거에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자원을 위주로 행해지던 관광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욕구 충족에는 부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에 관광은 심리적, 문화적 욕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3. 문화관광의 영향

문화관광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관광국의 문화와 역사를 접하고 기억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동서양 문화권에서 많이 사라져 가던 국제관광을 통해 외래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관광을 통한 경제수입으로 이들 문화가 보존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문화관광은 많은 문화자원 발굴 프로젝트로 적극적인 문화활성화 정책을 가능하게 하였다.

관광의 영향을 분류하는 방식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경제, 환경, 사회, 문화, 정치적 측면에서 파악되기도 하고,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문화적

14)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5).“문화.체육.관광 연계방안” p. 2

영향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기도 하며,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종합해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분류하는 등 그 분류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영향연구의 일반적 범주 구분은 경제적 영향, 사회적·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의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광의 영향연구에서 다루어진 경제적 영향의 일반적인 내용중 긍정적인 것으로는 외화획득, 고용창출, 소득증대, 경제구조의 개선 등이 있고, 부정적인 것으로는 외화유출, 통화팽창 유발,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투기유발, 3차산업의 확대로 타산업에 미치는 고용의 불안정 유발, 외지 자본에 의한 대외종속의 우려 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의 유형과 관계없이 나타난다.¹⁵⁾

관광수입은 다른 상품수출에 의한 외화수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상품수출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관세장벽과 원재료의 수입곤란, 수출 시장의 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들을 항상 안고 있다, 한편 수출대상국에서 민족감정·국제경제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상품배척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인데 반하여, 관광은 오히려 국제친선과 문화교류에 기여하면서 외화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관광의 경우, 관광객의 쇼핑 등 구매활동은 생활에 필요한 소비활동이 지역적으로 이동·집중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관광객의 소비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자극을 준다. 특히 관광왕래가 없다면 고안되지 않았을 일련의 관광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경제적 의의와 효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관광산업은 새로운 산업을 유발하고, 산업을 유치하는 지역은 또한 관광객이 들어 오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15) 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95),“문화관광에 대한 기초연구”, p.28.

것이다.¹⁶⁾

문화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관광객 활동이 관광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광객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데,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과 같이 토착문화와 사회보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그러나 대체로 교육적 효과, 정보교환 촉진, 상호이해 증진, 사회·인종·종교적 장벽 타파, 새로운 사상의 도입, 문화교류, 전통문화예술의 발전, 향토애 고취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문화적 갈등, 외국인 위화감, 가치관의 혼란, 문화의 상품화로 인한 변질, 퇴폐풍조 고조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관광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두가지 측면을 잘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관광의 환경적 영향은 관광지의 개발여부, 관광객 수와 관광목적 등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관광객 숫자가 많아질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환경적 영향으로는 생활하수·폐기물 등의 배출의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 냉·난방설비 및 차량통행 증대로 인한 대기오염, 동·식물의 생태변화, 쓰레기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및 소음공해, 건축공해 등의 부정적 영향과, 하부구조의 개발에 따른 생활환경 수준의 개선 등의 긍정적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¹⁷⁾

〈표1〉은 문화관광의 영향을 요약 한 것이다.

16) 김진섭(1993), 「관광학원론」, 대왕사, p.31

17)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9),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연구, p.29.

〈표1〉 문화관광의 영향

구 분	긍 정 적	부 정 적
경제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화획득 -고용창출 -소득증대 -경제구조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화유출 -통화팽창 유발 -토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투기 유발 -타산업에 대한 고용의 불안 -외지자본 의존에 의한 대외 종속의 우려
사회·문화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적 효과 -정보교환촉진 -상호이해 증진 -사회·인종·종교적 장벽타파 -새로운 사상의 도입 -문화교류 -전통문화의 발견 -향토애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갈등 -외국인 위화감 -가치관의 혼란 -매춘 -범죄증가 -도박 -알콜 및 약물중독 -문화의 상품화로 인한 변질 -퇴폐풍조 고조
환경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부구조의 개발에 따른 생활환경 수준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오염 -대기오염 -동·식물의 생태변화 -쓰레기 처리문제 -교통혼잡 및 소음공해 -건축공해

자료: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89),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연구, p.29.

Ⅲ. 문화관광 및 이벤트

1. 외국의 문화관광 이벤트 및 음악축제 현황

세계 어느 지역이든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추운 날씨, 눈, 더위, 장마 등의 기후 적인 요인이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요인들로 하여 지역의 경제 또는 관광의 비수기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지역의 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벤트 관광전략이 시도되고 있다. 하드웨어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고위 특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지역 특유의 관광상품과 이벤트, 서비스 개발등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로 전환하고 있다.

세계각국은 자국의 관광이미지 고양에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것은 관광지가 갖는 이미지에 의해 관광객의 관광지 방문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재방문 의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세계각국의 문화이벤트 성공사례와 음악축제에 관한 것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이벤트 상품개발의 비용절감효과와 경제적 관광효과 사례

지역의 문화 이벤트 개발사업은 기존에 관광대상, 즉 자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그래서 관광자본력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는 문화 이벤트 개발은 인기가 있다. 이벤트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는 특별한 시설이나, 도로, 전기, 하수시설등의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자

치제에 합당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이름 있는 축제들은 공공기관이나 개인 기업으로부터 스폰서를 갖고 유치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어 지역 경제적인 효과를 주고 개발 잠재성은 창의성에 따라 무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 이벤트 축제가 활성화되고 개발이 잘되면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

독일의 맥주 축제로 유명한 '10월 축제(Oktoberfest)'는 매년 평균 6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뮌헨으로 몰리고 있으며, 1993년 축제로 벌어들인 수입만 하더라도 약 1백억 마르크(5조원)수준으로, 1993년 우리 나라 전체 외국 관광객 등이 쓰고 간 관광지출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규모의 축제가 되기까지는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Oklahoma City)의 예술협의회 1987년 통계에 의하면 예술행사 개최와 미술관람 등 예술적인 관광유인물을 통한 시의 관광수입은 무려 8천 8백만 달러에 이르며 미술, 공예 및 각종 축제로 인한 이벤트 수입의 총 관광수입의 38%를 차지한다. 예술 이벤트 참가객 중 약 26%가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다. 모든 관광객의 유형 중에서 가장 소비지출이 큰 유형이 컨벤션(convention)참가자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벤트 관광 방문객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지출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1985년에 있는 캐나다 몬트리얼(Montreal)의 주요 이벤트 연구에 의하면 이벤트 방문객에 의한 직접 지출은 약 8천만 달러인데, 이 액수는 이 도시의 컨벤션 참석자 12만 5천명이 소비한 8천 7백만 달러에 비슷하게 육박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캐나다의 앤티고니시(Antigonish)지방의 '하이랜드 게임(Highland Games)'이나 다른 문화 축제를 보러 온 방문객들이 이 지역에 일반 관광객들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체류했고 비용 또한 상반되게 차이가 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표2> 는 앤티고니시 지방의 관광객을 비교한 것이다.

<표2> 앤티고니시 지방의 관광객 비교

구분 \ 내용	체류일수	비용(\$)
이벤트 방문객	9.65일	948\$
일반 관광객	6일	450\$

그리고 이벤트 방문객중의 약 26%는 이 지역을 방문한 이유가 ‘이벤트’때문이라고 답했고 거의 68%는 유명한 특정 ‘하이랜드 게임(Highland Games)’를 보기 위해서 앤티고니시(Antigonish)지방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이로써 이 ‘하이랜드 게임(Highland Games)’은 이 지역의 연중 중요한 관광성수기를 유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¹⁸⁾

지역주민의 관람객 보다 외지(外地)의 관광객 유치에, 지역 이벤트나 축제가 얼마나 성공적인가 하는 정도에 따라 이벤트 개최 장소 외에서 관광지출이 증가 할 것이다. 그것은 이벤트 관광객이 많을수록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식당 오락시설, 관광지 등에 자연스러운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한가지 사례로 미국 텍사스(Texas)주(州)의 갤베스톤(Galveston)시의 ‘갤베스톤 아일랜드(Galveston Island)’라는 유명한 주제공원(theme park)에 온 관광객 지출이 28%이었고, 나머지는 그의 다른 곳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

18) 정강환(1997),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관광전략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지역개발 논문집, p.215.

났다.

즉 ‘딕킨스 온 더 스트랜드(Dickens on the Strand)’의 이벤트 장소에서 방문객의 1인당 지출액 40.55달러였고, 주제공원 ‘갈베스톤 아일랜드(Galveston Island)’에서의 1인당 지출액은 24달러였다. 이벤트 상품이 지역경제 또는 지역관광에 거대한 경제과급효과를 준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

2) 이벤트 관광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외국에서는 이벤트 축제 하나만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명한 관광지를 부상시킨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는 인구 43만의 소도시로서 축제만 가지고 연 1천 2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유럽의 꽃”으로 부상한 사례이다.

중세풍의 건물들이 우중충하게 솟아 있는 에딘버러시가 유럽의 꽃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2차 대전 직후의 “축제로 지역발전의 승부를 걸자”는 주민들의 자각 때문이라고 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군악대 축제, 영화축제, 민속축제, 어린이 축제, 책축제, 과학축제등 20여종에 가까운 축제를 1년 연중 개최하면서 그중 8월에는 8개의 축제가 몰려 있어 축제의 절정을 이룬다.

스코틀랜드 관광위원회의 1992년 통계에 의하면 3개의 주요축제가 매년 7천2백 파운드(8백64억원)의 순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19) 강천석(1994), 지방경영시대-선진국편, 조선일보사

<표 3> 에딘버러 축제들의 경제적 효과

에딘버러와 로시안 지역 소비지출액: 4천3백 9십만 파운드 지역소득: 9백2십만 파운드 고용효과: 1,319명 고용에 해당하는 효과		
스코트랜드(에딘버러/로시안 지역포함) 소비지출액:7천2백만 파운드 고용효과: 3,034명 고용에 해당하는 효과		
각축제들의 소비지출액	에딘버러/로시안	스코트랜드
프리지축제	1천36만 파운드	1천1백28만 파운드
국제축제	6백91만 파운드	7백53만 파운드
군악대축제	1천9백57만 파운드	4천4백25만 파운드
재즈축제	1백19만 파운드	1백31만 파운드
영화축제	45만 파운드	46만 파운드
민속축제	18만 파운드	19만 파운드
과학축제	69만 파운드	74만 파운드
책축제	1백84만 파운드	2백41만 파운드
어린이 축제	1만 파운드	1만 파운드
2개 이상이 축제 방문객	2백65만 파운드	3백85만 파운드
합 계	4천3백86만 파운드	7천2백만 파운드

자료: Scottish Tourist Board,1992.

3) 이벤트 관광전략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강화 사례

세계각국은 자국의 관광이미지 고양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것은 관광지가 갖는 이미지는 관광객의 재방문의 의사가 결정지어지고 관광지의 매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안정된 국가에서의 지역의 관광 이미지 경쟁은 치열하다. 이미지 캠페인, 광고, 각종PR활동 등이 지역 관광 이미지 개선전략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지역축제, 이벤트가 지역문화 이미지 홍보에 자주 포함되고 있다.

지역의 관광광고 및 홍보물 제작에서 지역의 축제, 이벤트가 주로 포함되는 이유가 축제와 이벤트는 동적이고 화려하다. 그래서 광고매체에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문화의 활동이 다양하고 동적임을 보여 줄 수 있다.

어떤 농촌지역은 도시 이농현상으로 한적하고 경직된 이미지로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문화의 어떤 독특한 면을 찾기 어렵고, 방문매력이 없는 곳으로 이미지를 주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전승되어 오는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 이 지역의 문화적으로 독특하고 역동적인 면을 보여 주고, 또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긍정적인 관광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영국의 글래스고우(Glasgow)라는 시는 1960년대 침체된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1990년 ‘유럽의 문화도시(European Cultural Capital)’로 지정되는 영광과 함께 문화관광도시로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된 배경에는 각종 예술 문화이벤트, 가든 페스티벌(Garden Festival), 미술관, 박물관의 특별전시회 등의 범도시적 차원의 이벤트 관광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⁰⁾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 사례를 살펴보면, 웰링턴(Wellington)은 수도로서 정치, 상업, 경제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관광지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심어주지 못하였다. 바람이 심한 곳으로 알려진 별명도 관광의 도시 이미지에

20) 김희정(1997), “문화관광활성화 방안연구”p.68.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웰링턴이 역사문화자원, 쇼핑 및 스포츠 시설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유명한 관광자원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결국 이 도시는 이벤트 전략이 이용되었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예술축제’(International Festival of the Arts)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도시 역사적 향취는 물론 수도의 관광자원과 잘 연결되어, 이를 통한 새로운 이미지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1989년에 “웰링턴은 당신을 위해 공연하고 있습니다.”(Wellington performing for you)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여, 바로 “공연하고 있는”(performing)이란 단어가 이벤트들의 역동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으며, 웰링턴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란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이미지 캠페인은 정적인 도시이미지에서 활발한 생동감이 초석이 되어 도시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²¹⁾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레하이 벨리(Lehigh valley)지역은 과거에는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읍이었는데 문화관광자원과 문화이벤트를 적극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 및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지역에 외부 투자가 증가하고 관광객의 유치는 물론,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고취되었다. 지역정부는 높은 세금수입을 얻었고, 문화자원이 모두 자연스럽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 지역 범죄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4) 이벤트전략을 통한 도시개발사례

세계적인 박람회나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당장 그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사회 하부구조의 건설을 들 수 있다. 대형이벤트를 위해 건설하는 건물, 도로, 교통시설 확충,

21) 정강환(1997), “문화관광활성화 방안연구”,p.69.

사회문제자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즉 도시는 좀더 개발이 되고 도시 환경이 좋아진다. 이러한 도시개발 촉진제의 역할 때문에 대형이벤트를 서로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정부로부터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부각된 경우들이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 프랑스의 ‘파리’(Paris)를 들 수 있다. 1855년부터 1990년까지 파리는 다섯번의 세계박람회를 거의 11년을 주기로 개최하였다. 다섯번의 세계 박람회가 파리의 사회 하부구조기반을 크게 변화시켰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공원조성, 세느(Seine)강 주변 환경 정비 사업, 교량건설, 지하철 시설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대형이벤트의 유치는 도시의 레크레이션 시설이나 관광시설을 크게 확장시키고, 이벤트 준비로 설계된 건축물들이 이벤트 이후 관광자원, 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1915년에 개최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세계박람회, 1958년의 벨기에의 브뤼셀(Brussels)세계박람회, 1970년의 오사카(Osaka)박람회 등으로 각 개최 도시가 도시완공 부지와 시설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세계박람회의 주제 건조물인 파리의 ‘에펠탑’(Eiffel Tower)이나 시애틀의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은 유명한 관광명소로 남아 아직도 도시의 관광수입원이 되고 있다.²²⁾

5) 세계의 음악축제

관광자원으로써 문화적 요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세계 각 나라에서는 관광과 연결된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곳곳에서 펼쳐지는 영화제, 미술에서의 비엔날레, 각종연극제와 음악제는 관광의 이미지를 높임과

22) 정강환(199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관광전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지역개발 논문집」 p219.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관광의 매력을 더해주는 좋은 문화상품이다.

뛰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어루러지는 세계적인 음악축제 또한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서 이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잘츠부르크(Salzburg), 에딘버러(Edinburgh), 탱글우드(Tanglewood)같은 음악축제는 세계 정상급의 종합 음악축제로서 세계 전문 음악인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1) 영 국

영국은 일찍부터 적어도 음악의 소비면 에서는 다른 유럽국가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 작곡가 하이든, 베토벤, 쇼팽, 멘델스존, 구노, 베르디, 바그너 등의 꿈이 런던무대진출이었을 정도로 영국은 음악인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영국에는 런던만 해도 런던필하모닉, 런던심포니, 필하모니아, 로열필하모닉, BBC심포니,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등 세계곳곳의 오케스트라들이 연주하는 물론 레코딩 활동을 펼치고 있다.

EMI,소니 클래식, 데카등 메이저 음반사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어 런던을 가르쳐 '세계의 음악의 수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영국에는 1백년이 넘는 역사의 음악축제가 있다, 세계최대규모의 음악축제로 불리는 BBC프롬스 축제로서 매년 2개월 동안 20여만 명의 관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 음악축제의 입장료는 단돈2파운드(약4천원)에서 시작한다. 가장 영국적인 음악회를 위한 갖가지 헤프닝과 이벤트가 관객들이 이 축제의 매력으로 손꼽고 있으며 특히 모든 오페라를 영어가사로 번역하여 상연하는 것도 이 축제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²³⁾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상품을 영국은 이미 만들어 뿌리깊은 전통에다 동시대의

23) 이장직(1999.4.19. 10판), 중앙일보.

첨단과학을 조화롭게 선보이고 있다.

(2) 미 국

미국의 역사는 짧다. 하지만 향토이벤트 및 현대적인 연주회, 박람회 등은 수 없이 많이 개최되고 있다. 각 지역마다 콘서트와 축제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문화의 상품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대 도시나 중소 도시 거의 모든 도시가 교향악단을 가지고 있어서 연중 연주회가 끊이지 않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며 이들은 대부분 야외에서 연주회를 하는 것이 특이하다. 예술공연만을 위한 국립공원인 The Wolf Trap Farm이 있을 정도이다.

탱글우드 뮤직 페스티벌(Tanglewood Music Festival)도 음악홀과 드넓은 야외잔디음악당에서 펼쳐지는데, 이 축제를 위해 매년 25만 명이 탱글우드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보스턴 심페니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1937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세계의 유명 음악축제로서 손꼽히고 있다.²⁴⁾



(3) 오스트리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으로서 유명하지만 음악축제 또한 이에 못잖은 명성을 얻고 있다. 현재 잘츠부르크의 여름은 많은 전문음악인, 관광객들이 잘츠부르크 음악축제를 위해 찾고 있다. 오페라, 관현악, 합창, 음악학교운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잘츠부르크의 귀중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과 관광산업의 부흥을 가져오고 있다.

(4)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성악의 본고장에 맞게 오페라 공연을 하는 베로나 축제가 있

24) 이선문(1992). “문화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 모색”, 「제주대학교 논문집35호」, p.200.

다. 기원전에 지어진 야외 원형극장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1913년에 초연되어 현재도 매해 7월초에서 8월말까지 2달간 열린다. 이 기간에는 세계각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위해 베로나를 찾고 있으며 실내공연이 아니라 실외 즉,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공연은 관광객들에게는 대단한 매력의 무대가 되고 있다.

핀란드에는 눈덮힌 백야를 배경으로 한 쿠모의 실내악축제등이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 음악축제의 성공한 배경에는 뚜렷한 축제의 주제와 명분의 확실하고 각 나라마다 전통과 권위가 있으며, 특히 개최기간이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음악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교통문제와 여행경비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든 축제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상의 폭과 질을 높임은 물론 분야의 최신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에 <표4> 는 여름동안에 펼쳐지는 세계의 음악축제의 일부이다.

〈표4〉 세계의 음악축제

국가	음악제명칭	개최지	개최기간	시작년도	공연내용
독일	바이로이트바그너 페스티벌	바이로이트	7월-8월	1876년	바그너음악극
	베를린 페스티벌	베를린	9월	1951년	관현악,오페라,연극,심포지움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	루체른	8월-9월	1911년	관현악,합창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에딘버러	8월-9월		관현악,군악대,연극,뮤지컬
오스트리아	비인 페스티벌	비인	5월-6월	1958년	관현악,오페라,합창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7월-8월	1920년	오페라,관현악,합창
벨기에	플란데스 페스티벌	벨기에내의 도시순회	4월-10월		관현악,합창
스페인	그라나다 페스티벌	그라나다의알함브라궁전	6월-7월		플라멩고,고전음악,종교음악,무용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 페스티벌	엑상 프로방스	7월	1948년	오페라
	파리“작은성의 여름”페스티벌	상드니	7월		고전음악,재즈
핀란드	헬싱키 페스티벌	헬싱키	8월-9월	1951년	관현악,실내악,시벨리우스의주요작품
그리스	아테네 페스티벌	아테네	6월-9월		음악,발레,연극
미국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콜로라도	6월-8월	1948년	오페라,관현악,합창,실내악,재즈,세미나
	탕글우드 페스티벌	메사추세츠의빅슈어	7월-8월	1937년	관현악,실내악,합창,음악학교운영
	말보르 페스티벌	말보로	7월-8월	1951년	고전음악,현대음악
일본	태평양 뮤직 페스티벌	삿보로	7월-8월		관현악곡,세미나
	일본국제 청소년음악제	시즈오카,후지	7월	1979년 (3년)	관현악,관악,민속악,합창

자료: 객석 1992년 6월호

2. 제주의 문화관광이벤트 및 음악축제 현황

제주도는 입지적(立志的)으로 도서(島嶼)이고, 국제적으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시간30분의 비행거리속에 세계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다. 중국의 12억 인구와 일본의 1억4천만, 남북한을 합친 8천만 등 모두 14~15억의 인구를 갖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는 세계 경제력의 28%가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 거리 속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력과 인구는 북미시장공동체

(NAFTA)나 구주국가연합(EC)보다 배에 가까운 통계이다.²⁵⁾

제주도는 최상의 입지적·자연적 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관광에서도 정체성이 최근 들어 급격히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내외국인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 성장과 함께 관광상품에 차별화를 두지 못했던 까닭이라 본다.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입지적·자연적 조건과 함께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이 필요하다. 단순히 보여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전략이 요구된다.

1) 제주도의 문화이벤트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을 중심으로한 전통적인 농경사회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계절변화에 따른 농번기, 농한기 따라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 한 개이상의 향토문화예술제가 거행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총 325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축제들 중 규모가 큰 것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관광상품으로서 커다란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지자체의 고민거리인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투자로 관광상품화가 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향토축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축제의 관광상품화로 얻는 수익은 지역주민들에게 주로 환원되기 때문에 지역내 창출된 소득의 승수효과를 높임으로 기존 관광지역에서 나타난 관광소득의 '지역외누출'이라는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²⁶⁾

이와 같은 축제와 이벤트가 제주도에서도 관광과 접목시켜 관광자원화의 노력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관광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통한 관광전략이었지만 경제성장

25) 최상철(1994),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제주개발의 전략". 「제주도지 96호」, p.57.

26) 손대현(1993), 「한국문화의 매력과 관광이해」, 일신사.

의 향상과 함께 관광객들도 보는 관광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문화적 욕구까지 요구하게 되어 기존의 관광전략을 가지고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부상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 이렇게 행정단위별로 여러 가지 문화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 제 주 도

제주도에서는 우선 <한라문화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1962년 ‘제주예술제’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1965년 ‘한라문화제’로 개칭한 후 현재까지 민속경연, 학생민속한마당등 다양한 예술행사로 제주도의 자연적, 역사적 특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 축제다.

<한라문화제>는 들판, 거리, 바다를 모두 축제마당으로 만들면서 축제의 특징화, 문화관광의 자원화를 지향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는 제주도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축제라 할 수 있다.

1998년에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세계 섬들이 모여서 전통 춤과 음악을 통한 세계섬문화축제를 개최하였다. 제주도 <세계섬문화축제>는 문화발전의 극대화, 제주의 세계화, 세계 섬들의 연대화, 경제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세계의 섬들이 모여서 축제를 시작하였다.

<한라산 눈꽃축제>는 제주도를 상징화하는 한라산의 눈꽃을 관광자원화하여 시작된 한라산 눈꽃축제는 자연이벤트로서 1997년도 개최되었다.이 축제기간에 하는 공식행사로는 전야제, 개막제, 폐막제가 펼쳐지며 전시행사로 는 눈하르방, 조각전, 비디오 이글루전, 한라산 사진전, 기획행사로는 한라산 스키축제, 눈썰매 축제, 눈꽃 트래킹, 눈얼음 조각전이 펼쳐지고 있다 .

또한 제주도에서는 제주의 억새꽃을 주제로 한 <억새꽃 큰 잔치>가 1992년부터 각종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개막식, 축하공연, 생수축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제주도의 가을축제로서 자리잡고 있다.

4월 중순경에 제주도 곳곳을 노랗게 물들이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봄꽃인 유채꽃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해 1983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유채꽃잔치〉는 제주도의 상징적인 향토축제로서 매년 열리고 있다.

(2) 제 주 시

제주시의 대표적 축제는 〈왕 벚꽃잔치〉는 제주도가 왕벚나무 자생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벚꽃이 피는 4월초에 제주시내에서 펼쳐지는 도심축제이며, 풍물놀이를 비롯하여 불꽃놀이, 사물놀이공연, 노래와 춤의 경연대회, 관광객 참여게임이 펼쳐지고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3) 서귀포시

서귀포지역에서는 〈칠선녀 축제〉, 〈칠십리 축제〉가 손꼽힌다.

〈칠선녀 축제〉는 국제관광지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1995년부터 개최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중문관광단지를 끼고 있는 천재연 폭포 주변에서 번지점프시험, 열기구타기, 칠선녀 선발대회등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칠십리 축제〉는 국제관광 중심지로서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새로운 문화관광의 정립을 위해 1995년부터 개최되는 행사로 주민과 관광객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내용이 흥미를 끄는데, 서귀진목사행차가 상징적인 축제이다.

(4) 북제주군

북제주군의 대표적 축제로는 <해변축제>와 <들불축제>가 있다.

<해변축제>는 제주도 승격 50주년을 경축하는 군민화합과 북제주군관광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협재 해수욕장에서 개최되어 윈드서핑 퍼레이드, 해변속내 조형전등 해변의 특성을 살린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들불축제>는 정월대보름날 행해지는 이벤트로써 예로부터 전해져 오던 목야지 불놓기 민속을 오늘에 재현하여 특성 있는 문화관광자원화 한다는 취지아래 1997년부터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실제행사와 본 행사로 나뉘어 본 행사에는 햇불점화, 무재해 풍년 기원제, 불놓기 시연, 불놀이와 춤마당등 불을 소재로 한 이색적인 관광 이벤트로서 축제의 특징들이 잘 살려진 행사이다.

(5) 남제주군

남제주군의 대표적 축제로는 <성산일출제>와 <고사리 꺾기 대회>를 들 수 있다. 성산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한 성산일출제는 신년 첫날에 일출시간에 맞추어 해맞이 공연등 행사가 펼쳐지는 새해맞이 행사다.

<고사리꺾기대회>는 봄철에 나오는 고사리를 참가자들이 직접 꺾어 보는 체험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객과 주민들의 합동 축제이다.

제주도에서는 이외에도 크고 작은 축제들이 해마다 열려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흥과 멋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축제에 대해 자체 분석한 애로사항 및 육성방안은 거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할 전문가의 부족, 축제 예산의 자치단체 의존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외에도 우리 나라 축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인 개최

동기의 적정성 여부, 개최기간, 개최장소, 축제의 주최 및 주관, 행사내용,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축제에서 성공사례를 볼 때 축제는 언제까지나 주제가 확실할 때에 성패는 좌우되는 것은 앞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축제개념에 맞게 기획하고 연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행사나 사업들이 배정될 때, 그 추진상의 낭비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제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하면 우선 축제상황에 대한 최대한 신속하게 축제의 실제상황을 가연출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획과 섭외, 연출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오락성과 소비적 행태를 가능한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 사실 어느 축제나 마찬가지겠지만, 축제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나친 오락성과 소비적 행태이다, 오락관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축제는 결국 생명력을 잃고 만다. 때문에 축제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를 위해서 도내외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과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나누어 먹기식으로 축제행사나 사업들을 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축제의 기본개념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축제개념에 맞게 기획하고 연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행사나 사업이 진행될 때, 추진상의 낭비되는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축제는 문화적 친숙도를 높이는 최선의 방책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문화관광이벤트가 제주도민과 온 세계인들이 함께 하는 풍요로운 문화의 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 터에서 온 세계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인간적인 만남들이 풍성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2) 제주도 음악축제

(1) 제주국제관악제

1995년에 처음 시작된 <제주국제관악제>는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97년에는 외국단체 7개팀(호주1, 독일1, 일본1, 대만1, 홍콩2, 중국 1:350명), 국내단체 13개팀(750명), 합창단 4개팀(300명)이 참가하였다. 연주장소 6곳(제주도문예회관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서귀포천지연폭포야외무대, 함덕해수욕장야외무대, 성산일출봉야외공연장, 제주시청광장), 총연주회 19회였으며, 관람인원은 연 2만5천명이었다.²⁷⁾

연주장소의 확대, 기념악보 출판, 제주의 밤 개최, 국내외 유명연주자들의 공개강좌와 연주를 통해 지역주민과 미래의 음악인들에게 관악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주었다. 2회 까지 치르는 동안 국제관악제는 앞으로 제주에서 국제 문화 이벤트의 가능성을 보인 음악축제이다. 또한 여름에 열린 공간에서 수려한 자연환경이 함께하는 연주는 음악제의 매력을 더해 준다.

(2) 탐라합창제

1980년에 처음 시작된 탐라합창제는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지역단위의 합창 축제이다. 제주도민의 화합과 문화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제주도내의 합창음악의 발전에 대단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지역별대항, 학교대항, 직장.단체등의 출연팀들의 펼치는 탐라합창제는 음악인과 그 외 지역주민들의 음악활동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3)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제주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여름밤의 해변축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

27) 이상철(1997),“제주관악제의 회고와 방향모색”제주도,p.180.

게 한 여름밤에 다양한 장르에 음악과 무용등 공연예술을 7~8월 두달동안 열리고 있으며, 1994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바다와 인접한 야외공연장에서 여름밤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4) 천지연 여름밤 음악축제

서귀포지역에서 1996년부터 개최되는 축제로서 <천지연 여름 밤 음악축제>를 꼽을 수 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작된 음악축제는 바다와 폭포가 어우러진 천지연 광장에서 다양한 음악회가 펼쳐진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 내에서 열리는 음악제가 활성화의 바람을 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할 전문가의 부족이다. <제주도 국제 관악제>에서도 주최측이 진행미숙이나 팜플렛 오기 등은 행사의 기획이나 진행에 있어서 비전문성에서 부터 기인한다. 주최측에서 일한 인력들은 사실상 현재 연주자들이나 기획과는 다른 분야의 자원봉사자들로서 실수는 따르기 마련이다. <제주도 국제 관악제>가 서서히 국제적인 문화 이벤트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획과 진행을 할 수 있는 분업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축제나 이벤트는 다른 분야의 사업과는 달리 일반인들에게는 소비적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이나, 개인, 기업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무료 공연 관람은 공연예술에 있어서 관람 수준도 낮게 만들고 또한 공연수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만든다.

IV. 제주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따른 음악의 역할

1. 문화관광과 음악과의 상관관계

영국의 레스터대학의 심리학과 애드리언 노스 교수는 슈퍼마켓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음악을 틀어주면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한 적이 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프랑스 어코디언 음악을 들려 준 날은 프랑스산 포도주가, 독일 행진곡을 들려준 날은 독일산 포도주가 무려 3배씩 더 팔린 것이다. 더욱이 정작 그 날 포도주를 산 소비자들은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몰랐다고 한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문화의 힘이다. 28) 문화는 그 자체가 상품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상품구매력을 자극해 매우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각국에서는 이미 문화의 힘을 알고 자신들의 문화를 세련되게 제작해서 직접 상품화 하기도 하고, 또는 상품 판매의 친숙도를 높이는 매체로 이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현대에 이르러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많이 시도됨에 따라 다방면에 음악이 관광산업에 이용되고 있다.

태교를 위한 음악은 이미 많은 산모들에 의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식물재배, 술가공, 요리등 여러 방면에 사용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응용과학으로써 자리잡고 있다. 또한 병치료를 위한 치유법에도 음악이 적용되어 음악치료사라는 새로운 직종까지 생겨났다. 이렇게 음악

28)조영배(1997). “섬문화 축제와 세계화 생존전략”,제주도, p. 79

은 인간이 삶에 있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접하게 되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은 사회 경제적인 부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음악을 관광자원화 하여 경제활성화 및 관광지 이미지 향상 등에 성공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쾰츠부르크(Salzburg), 영국의 애딘버러(Edinburgh), 미국의 탕글우드(Tanglewood)같은 음악축제는 전문음악제로서 유명하며, 핀란드의 쿠모 실내악 축제 또한 한겨울에 소규모의 실내악의 특징을 살려 실내악의 주제별로 각각 연주홀 마다 연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많은 연주자, 관광객들이 찾는 겨울축제가 되었다. 쿠모 실내악 축제는 일본인 한 여선생님이 이 축제의 산파로서 소박하게 시작한 축제였지만 지금은 국제음악축제로서 큰 규모의 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와이, 멕시코, 하이티, 스페인에서도 음악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흥미 있는 대상으로써 관광진흥에 대단한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콘서트 및 야외음악당의 프로그램과 음악 디스크나 카세트테이프 판매가 그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음악의 관광자원화 개발에 대한 효과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관광객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음악을 통해 심신의 휴식, 문화적 욕구충족 더불어 즐거움을 줌으로써 자연경관과 함께 음악을 듣게 되면서 기존에 관광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 더 커질 것이다. 음악이 관광자원화의 효과를 관광객들의 관광동기측면에서 보게 되면,

첫째, 문화적, 교육적 동기 충족시킬 수 있다.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와서 음악을 접하므로 해서 문화적 욕구충족 및 음악에 관한 교육적 동기 충족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여가시간 활용의 목적에 있다. 관광의 주요한 목적은 휴식이다.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위인데 오늘날에 여가시간의 증대와 여가활용이 다양성에 맞게 음악은 문화적 욕구충족, 교육적 동기 충족을 넘어서 휴식

과 쾌락을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관광지에서 좋은 음악회를 감상하므로써 여가시간을 통해 즐거움을 찾게 된다. 관광지에서 음악적인 요소를 가미하므로써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셋째, 자기실현의 욕구충족이다. 관광객은 관광지가 갖는 문화관광자원을 동경함으로 동시에 자기가 속한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을 갖게되고 그러한 확신 속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욕구구조 5단계에서 관광객은 관광을 통하여 관광객의 최종적인 목표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한다고 하였다.

2. 공연장

음악이 완성되어지려면 우선 작곡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 연주자의 연주로 인하여와 감상자의 감상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음악은 작곡, 연주, 감상의 과정이 어우러져 질서와 조화를 이루므로써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공연장은 연주자와 청중이 만나 연주와 감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주요한 곳이다.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각 지방 곳곳에 공연장이 설립되고 문화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제주도에도 80년대에 설립된 제주도 문예회관이 있는데 1,000석내의 실내공연장은 대극장, 소극장으로 나누어져 오페라, 연극, 무용, 각종음악회등을 할 수 있어 제주도의 대표적인 공연장이라 할 수 있다. '98년을 기준으로 대극장의 경우 음악공연 114건, 연극48건. 무용15건, 국악2건, 기타공연물 32건 등 총공연일수 211일 동안에 11만4천9백명의 관람객이 차지하였고, 소극장 경우 음악 58건, 연극 27건, 국악 6건, 기타 55건등 공연일수 146일에 관람인

원은 1만9천3백4십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제주도문예회관 1998년 집계) 그밖에 학생회관, 제주민속관등의 실내 공연장이 있으며,1994년 건립된 탐동해변 공연장은 바다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야외 특설무대로써 여름이 되면 관광객들과 제주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을 뿐 더러 제주시립예술단이 연습장소이기도 하다. 여름이면, <한여름밤의 해변축제>를 통해 음악회, 무용, 공연예술을 한달여간 개최하여 여름밤의 정취를 더해 줌으로써 제주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제주시내를 제외하고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에는 마땅한 공연장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나마 공연장이 갖추어진 제주시내에는 국,내외 연주자들이 찾아와 연주를 하지만, 그밖에 곳에서는 전용공연장이 없어서 대부분 공연물이 제주시내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제주도는 사방 어느곳 모두가 한 시간 내에 위치한 곳에 있는 만큼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 각각에 규모 있는 전용극장이 건립된다면 제주시내에 집중되는 문화행사가 분산되고 지역마다 새로운 관광자원의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면에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건립하여 제주도 전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는 관광지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섬으로써 관광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제주도 축제 관악제도 올해로 세 번째 행사를 치르게 된다. 제주도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국제음악축제로서 제주시내에서 공연은 문예회관과 탐동해변공연장을 이용하지만 그밖에 서귀포 천지연 야외무대, 함덕해수욕장 야외무대, 성산일출봉 야외공연장은 임시로 만들어져 연주자들의 분장실, 음향, 조명등 무대의 허술함 때문에 기후가 나빠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할 경우는 연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제적인 음악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방해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실내 공연장도 1,000여석

규모의 공연장을 각 지역에 설립하여 국제관악제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 또는 각종 공연물 공연이 제주도 어느 지역에서든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호텔에도 공연장을 만들어 공연을 상설화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단순한 관광에서 벗어나 문화적인 풍요로움도 만끽할 수 있다. 한예로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호텔 제주신라에서는 건전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제주지역 문화 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매해 7월~8월초까지 호텔에 야외무대를 설립하여, 관현악, 합창, 대중음악등의 공연을 마련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공연장이 있을 때 제주도는 다양한 문화를 키워나갈 수 있으며,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예술인들의 자극은 제주의 문화발전과, 관광음악에 크나큰 역할의 장소가 될 것이다.



3. 인적자원

1980년 초에 음악교육학과로 시작한 제주대학 음악학과는 현재 4학년 구성되어 각각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현악전공, 관악전공, 작곡전공이 있다. 음악교육학과에서 배출한 졸업생들은 제주도 내,외에서 중등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 졸업생들은 음악학원이나 교습소등에서 음악인 양성 및 일반인을 위한 음악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 생겨난 시립예술단 활성화에 따라 제주도에도 제주시립합창단, 제주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었고, 서귀포시에도 서귀포시립합창단, 서귀포관악단이 구성 되어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졸업생의 졸업후의 진로는 시립예술단에 입단함으로써 취업과 동시에 음악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배출되는 졸업생들이 갈 곳은 막막할 뿐이다. 음악인이 전공에 따른 활동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 열심히 닦아온 인재를 잃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음악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제공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문화발전과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제주대학교 음악학과외에 한라대학에 사회음악학과 2학년이 있고, 제주관광정보대학에도 음악학과 2학년이 있는데, 사실 이들이 진로는 대부분의 음악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때에 제주의 문화 관광이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4. 예술 행정



예술행정의 부재는 활발한 공연문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 나라 전체적인 예산중 문화관련예산이 1%도 채 안 되는 것은 우리 나라 예술행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예술인들과 행정부서의 잦은 마찰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92년도에 들어서 각 시도에 문화예술과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98년에 이르러서는 IMF의 영향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과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어 체육과 문화예술방면에 행정을 함께 보고 있다. 한 나라의 문화 발전은 당장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에 한 나라의 문화발전은 탄탄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예술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리,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제주시만 보아도 예술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일을 할 만하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일이 다반

수 이다. 그래서 다른 인력이 확충되면 또 예술행정에 대해 새로 배우고 아는 과정에서 오는 인력낭비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술행정이 제대로 정착된 외국의 경우 지원을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여 예술의 진흥에 따른 정책수립은 물론 일선 극장에 이르기까지 예술행정의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하나의 극장에만 하더라도 운영이사회 산하 행정관, 재정감독, 홍보담당관, 극장지배인 등으로 나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자세를 갖고 공연물에 대한 지원은 물론 관객의 반응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쏟는 등 예술행정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예술행정이 문화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예술관련부서를 비롯 관광행정부서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깨닫는 인식의 전환과 예술행정이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린 전문 인력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 것이다.



V. 제주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음악축제의 활성화 필요성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산업과 대중전달매체가 고도로 발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는 부차적인 의미로서 존재가 아니라 각 국가의 경제 생산력의 기반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분쟁은 민족분쟁과 종교분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는 정치적 이념에서 문화의 정체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미래의 21세기는 문화 경쟁시대가 도래함을 알 수 있는 현상이다, 문화축제만 하더라도 각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벌어지는 축제들은 단순히 놀이 문화의 수준을 벗어나 생존전략이 수단으로 변하고 있다.

제주도의 과거 척박한 땅을 일구고 악조건의 환경을 이겨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의 전부인 삶이었다. 놀이 문화에 대해서는 소비적이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축제가 아주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노동만이 생산활동이던 시대는 지나갔고 현대는 축제가 매우 중요한 생산활동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 지역사회의 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전통문화를 시대에 맞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문화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이 있다고 본다.

제주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한라문화제>가 있다. 그러나 이 축제에서는 대부분의 과거 전통문화에 치우친 행사운영 때문에 축제의 생동감이 반감되어 문화축제로서의 제구실이 미흡한 실정이라 진정 바람직한 문

화축제는 질 높은 전통문화와 다른 새로운 비교대상이 문화의 축제가 같이 이루어질 때 올바른 축제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통한 경제력 활성화를 위해 음악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음악축제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나아가 관광자원화하여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음악축제의 형태

음악이 장르 속에는 관현악, 합창, 오페라, 독창, 실내악, 뮤지컬, 관악등 소리를 갖고 이루어지는 음악의 형태는 다양하다. 세계각국에서 운영되는 음악 축제기간동안에 각 장르를 지역의 독특한 환경과 실정에 맞게 적절히 구분하여 음악축제의 특징으로 삼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잘츠부르크 음악축제 기간 동안에는 오페라, 관현악, 합창이 연주되고, 영국의 에든버러 음악축제에는 관현악, 군악대, 연극, 뮤지컬 등이 연주되는 반면에 필란드의 쿠모 음악축제 기간에는 단지 실내악만 가지고 축제를 하고, 프랑스의 엑상 프로방스 축제에서는 오페라를 갖고 음악축제를 한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축제인 영국의 BBC프롬스 축제에서는 갖가지 이벤트와 헤프닝이 속출하는 가장 영국적인 음악회로서 1백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모든 오페라를 영어가사로 번역하여 상연하는 특색 있는 축제로써 성공하였다.

앞으로 음악축제는 주제가 선명하고 특색이 있어야만이 음악축제로써의 성공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95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 제주도 국제관악제 역시 관악기만을 위한 축제로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이다.

3. 음악축제 효과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방에 둘러싸인 크고 작은 오름들과 사면에 바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한 제주방언, 과거의 민속자원등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널려 있는 우리 나라의 보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음악축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관광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음악축제의 효과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문화관광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문화라는 것은 과거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제주도라고 하면 의례히 과거의 민속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강한 반면에 현재와 미래를 내포할 수 있는 문화가 부족하다. 사실 인간은 과거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만큼 뿌리를 부정할 수는 없고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전통문화는 그 나름대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문화의 개발 또한 지원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음악축제를 제주도 지역에 걸쳐 실행할 때에 전통문화와 함께 공존하여 지방 문화관광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이 활용을 들 수 있다. 제주도내에는 제주시예술단, 서귀포 예술단, 도립예술단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있다. 그리고 제주 대학 음악학과, 관광대학음악학과, 한라대학 음악학과, 그 외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음악인들이 있지만 마땅히 사회적 가치 입장에서 음악활동의 장이 미흡하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예술단체들은 단지 시민을 위한 연주를 떠나 음악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좀더 폭넓은 인적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각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들 또한 앞으로 음악축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그들의 설자리도 서서히 갖추어지고 음악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

한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제주전역에 걸쳐 음악축제가 이루어질 때에 많은 연주자, 연주단체 및 그 외 가족 및 관련기관원들의 제주도를 찾을 때 숙박시설, 오락시설, 관광지관람, 식음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시설이용에 따른 경제적 소득은 제주도내에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제주도의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들 수 있다. 제주도에서 음악축제가 계속 이루어질 때에 국내외적으로 제주도의 홍보 및 PR이 자연스럽게 되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음악축제는 제주도 관광지의 이미지 강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VI. 결 론

지금까지 제주개발은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개발방법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개발에 그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써 문화자원개발에 대해서는 미비하였다. 그러나 다가오는 21C는 문화의 세기이다. 문화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는 생존과 밀접하게 접하고 있으며 문화는 이제 경제적 수단이기도 하다.

세계의 관광 또한 문화관광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생활여건의 풍족해짐에 따라 관광객의 욕구변화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이제는 체험할 수 있는 심미적 관광으로 변해가고 있다.

문화관광은 단순한 형태를 지닌 축제보다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인 세계의 모든 부분을 의미하며 삶에 있어서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의 대상의 토대가 되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주도의 문화관광 활성화의 방안으로서 기존의 문화관광이벤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또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음악축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문화이벤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요약해 보면 우선 축제상황에 대한 최대한 신속하게 축제의 실제상황을 가연출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획과 섭외, 연출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오락성과 소비적 행태를 가능한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 축제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나친 오락성과 소비적 행태이다, 오락관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축제는 결국 생명력을 잃고 만다. 때문에 축제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를 위해서 도내외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과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나누어 먹기식으로 축제행사나 사업들을 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축제의 기본개념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축제개념에 맞게 기획하고 연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행사나 사업이 진행될 때, 추진상의 낭비되는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음악축제의 형태로는 첫째, 제주도 국제관악제를 좀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주최측의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탐라합창제를 세계합창제로 발전하는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문화관광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음악축제의 효과적인 측면을 요약 해보면, 첫째, 지방문화관광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제주도내에는 문화관광자원에 음악축제를 개최할 때에 제주도는 새롭고 창조적인 문화의 출발지가 될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이 활용을 들 수 있다.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음악인들이 많지만 마땅히 사회적 가치 입장에서 음악활동의 장이 미흡하다. 그래서 음악축제를 통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좀더 폭넓은 인적자원의 활용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음악축제기간에 제주도를 찾는 연주자 및 관람객들이 숙박시설, 오락시설, 관광지관람, 식음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내에서 해결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모든 시설이용에 따른 경제적 소득은 제주도내에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제주도의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들 수 있다. 제주도에서 음악축제가 계속 이루어질 때에 국내외적으로 제주도의 홍보 및 PR이 자연스럽게 되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음악축제는 제주도 관광지의 이미지 강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제 문화관광은 세계화를 위한 전략산업이다. 우리의 제주도의 문화관광자원을 전세계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더 많은

외래관광객은 물론 국내관광객의 유치를 증대시켜야 한다. 이는 국제친선의 기능과 더불어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 교량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세계 속의 관광제주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의 문화적 전통과 예술적 창의력을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여야 하며, 세계를 향하여 제주문화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관광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새로운 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향후 구체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문칠(1999), 「음악의 정신」, 나라출판.
- 김성혁(1996), 「일본의 관광산업」, 일신사.
- 손대현(1989), 「관광론」, 일신사.
- 전경수역, 「관광과 문화」, 까치.
- 이태희(1996), 「관광산업발전론」, 일신사.
- 한경수(1997), 「관광마케팅의 이해」, 학문사.
- 김진섭(1993), 「관광학원론」, 대왕사.
- 안중윤편저(1981), 「관광용어사전」, 법문사.
- 김진강(1997), “지역축제의 여행상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경제대학원.
- 김희정(1997),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이선문(1992), “문화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모색”, 제주대학교 논문집35호.
- 이상철(1996), “문화관광 이벤트로서의 제주국제관악제 활성화 방안,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재욱(1997), “비영리 예술기관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정강환(1995),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관광전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지역개발 논문집 제7호.
- 정강환(1995), “이벤트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단체, 기업체의 역할,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조영배(1997), “섬문화 축제화 세계화 생존전략” 제주도.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9), “문화도시 문화복지”.
- 한국관광공사(1997),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89),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5), “문화.체육.관광 연계방안”.

예음(1992), 객석6월호.

제주도(1998). 통권102호, 제주도.

중앙일보(1999.4.19. 10판) 이장직.

Wahab S(1975). Tourism Manasement, London Tourism International press

Anthony J.Tighe(1985), "Cultural Tourism in the U.S.A." Tourism
Management, Vol.6.

Scottish Tourist Board(1992), Edinburgh Festival Study: Visitor Survey and
Economic Impact.



S u m m a r y

The tourism industry is given much weight in the economic stability and growth of Cheju. But Cheju has undergone all sorts of hardships from many causes like preference of travel abroad during the last ten years. This is the reason why Cheju stands in need of a turning point in tourism.

Culture is the greatest center of tourist's interest. Especially it is very worthy that culture is peculiar and distinctive. So I'd like to suggest 'a music festival' as a tourist resource to foster Cheju tourism.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etical possibility as well as the successful cultural tourism through the precedents of many nations. This paper shows the present condition of cultural event industry on Cheju and controversial points in festivals.

With reference to success stories of international music festivals, the contents of summarizing efficient aspects of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re as follows:

Frist of all, there is an improvement in local culture: if Cheju would hold a music festival, cheju would be a starting point of creative culture.

Secondly, the efficient use of human resources : there are many musicians on Cheju. But they seldom have a performance opportunity. We can use greatly a lot of human resources if we make a tourist resource of the musical festival.

Thirdly, there is a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Both performers and visitors will use sleeping accommodations, amusement facilities, and so on. So Cheju will profit pretty well by the rent of various

facilities during the term of a music festival. Such financial profits are of much help to Cheju province.

The next most important thing is to improve the image of sight-seeing spots. If Cheju frequently holds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with the fantastic landscape, it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image of Cheju tourism as well as inform the homeland and abroad of Cheju.

Now cultural tourism is the strategic industry. A music festival is the essential field to encourage cultural tourism from now on.

